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회전구조물을 접목한 각형 도제주전자 연구  
- 면치기 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Multi-sided Kettle Grafting  
Rotating Structure  
- The Focusing on Angle Cutting -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오 성 훈

회전구조물을 접목한 각형 도제주전자 연구  
- 면치기 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Multi-sided Kettle Grafting  
Rotating Structure  
- The Focusing on Angle Cutting -

지도교수 김종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오성훈

오성훈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       |     |
|-------|-----|
| 심사위원장 | (인) |
| 심사위원  | (인) |
| 심사위원  | (인) |

# 목 차

|                            |    |
|----------------------------|----|
| 요 약 .....                  | i  |
| 표 목 차 .....                | ii |
| 도 목 차 .....                | ii |
| 작품목차 .....                 | iv |
| <br>                       |    |
| I. 서 론 .....               | 1  |
| 1. 연구목적 .....              | 1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 2  |
| <br>                       |    |
| II. 본 론 .....              | 3  |
| 1. 주전자의 일반적 고찰 .....       | 3  |
| 1) 주전자의 개념 및 구조 .....      | 3  |
| 2) 주전자의 시대별 특징 .....       | 6  |
| 3) 주전자의 작품사례 .....         | 9  |
| 2. 각형 도자기의 고찰 .....        | 15 |
| 1) 각의 개념 및 특성 .....        | 15 |
| 2) 각형 도자기의 특징 .....        | 16 |
| 3) 각형 도자기의 작품사례 .....      | 17 |
| 3. 회전운동을 이용한 구조물의 이해 ..... | 22 |
| <br>                       |    |
| III. 작품제작 및 설명 .....       | 26 |
| 1. 작품계획 .....              | 26 |
| 2. 제작과정 .....              | 27 |
| 3. 작품설명 .....              | 36 |
| <br>                       |    |
| IV. 결 론 .....              | 45 |
| 참고문헌 .....                 | 46 |
| 영문초록(Abstract) .....       | 48 |

## 요 약

도자기는 오랜 세월 우리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 무언가를 담는 용도인 생활용기의 도자기로부터 현대도예에서는 실용적인 공예품과 오브제작품이 공존하며 도자공예의 영역 또한 구분하기 까다로울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용적인 공예품제작을 목적으로 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기형중에 여러가지 구성요소가 하나의 어우러짐으로 완성되어야 기능을 다하는 주전자를 주제로 정하였다.

주전자는 몸체, 수구, 뚜껑, 손잡이로 이루어진 각각의 구성요소가 전체적인 조형적 어우러짐과 소성후 담고 따름에 있어 기능성을 충실히 갖춰야 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연구에 적합하기에 연구주제로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작품제작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주전자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주전자의 형태와 구성요소의 역할을 알아보았고 주전자의 시대적, 형태적 특징, 현대도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주전자 작품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용적이며 독특한 형태미를 갖는 주전자 제작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전자를 손으로 쥐고 따르는 보편적인 방법에서 회전구조물을 제작하여 다른 관점에서 따름의 방법을 연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회전구조물은 회전운동을 이용한 제품, 기구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

주전자의 형태는 물레성형에서의 한계적 형태인 대칭구조를 면치기기법을 이용한 면분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전자를 제작하고, 타재료인 회전구조물의 접목을 통해 주전자의 따르는 기능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조형성에 있어어도 차별화될 수 있는 주전자제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표 목 차

|                    |    |
|--------------------|----|
| [표 1] 소성 곡선표 ..... | 35 |
|--------------------|----|

## 도 목 차

|   |    |
|---|----|
| [도 1] 주전자의 구조와 명칭 .....                     | 5  |
| [도 2] 기마인물형 토기, 신라 5~6세기 .....              | 6  |
| [도 3]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고려시대 .....              | 7  |
| [도 4] 청자정병, 고려시대 .....                      | 7  |
| [도 5] 청자어룡형주자, 고려시대 .....                   | 9  |
| [도 6] 청자퇴화문석류형주자, 고려시대 .....                | 9  |
| [도 7] 청자상감모단당초문표형주자, 고려시대 .....             | 10 |
| [도 8] 청자상감포도동자문동채표형주자, 고려시대 .....           | 10 |
| [도 9] 청자참외형주자, 고려시대 .....                   | 10 |
| [도10] 청자상감초화문과형주자, 고려시대 .....               | 10 |
| [도11] 청자태화연당초문주자, 고려시대 .....                | 11 |
| [도12] 백자주자, 조선시대 .....                      | 11 |
| [도13] 청자상감연당초문주자, 고려시대 .....                | 11 |
| [도14] 청화백자산수문주자, 조선시대 .....                 | 11 |
| [도15] 한주은, 또 다른 공간, 2002년 .....             | 12 |
| [도16] 한주은, 문명의 이기, 2002년 .....              | 12 |
| [도17] 장 소우즈(張守智), 曲 - 高, 1988년 .....        | 13 |
| [도18] 장 소우즈(張守智), 高 - 122-1990, 1990년 ..... | 13 |
| [도19] 안혜은, Modern_C, 2012년 .....            | 14 |
| [도20] 안혜은, Modern_D, 2012년 .....            | 14 |

|                                       |    |
|---------------------------------------|----|
| [도21] 정 희균, 청 화백자면취문 다관, 2010년        | 14 |
| [도22] 김영란, 주전자, 2010년                 | 14 |
| [도23] 청 화백자초화문표주박형 병, 18세기 전반         | 17 |
| [도24] 청 화백자 철화시명나비문 연적, 18세기 전반       | 17 |
| [도25] 원대정 「여백-96」, 1996년              | 18 |
| [도26] 김익영, 대칭기, 2004년                 | 18 |
| [도27] 서호석, A Grove-I, 2010년           | 19 |
| [도28] 이기욱, Face, the music, 2009년     | 19 |
| [도29] 이정용, 백자양각모란문팔각반, 2004년          | 20 |
| [도30] 이정용, 백자투각파초문반, 2004년            | 20 |
| [도31] 하마다쇼지, 각병, 2010년                | 20 |
| [도32] 스즈끼오사무, 시노물항아리                  | 20 |
| [도33] 한정용, 백자수반, 2009년                | 21 |
| [도34] 진자운동의 예                         | 22 |
| [도35] 거꾸리 운동기구                        | 22 |
| [도36] 놀이기구 바이킹                        | 22 |
| [도37] 회전식 대형가마솥                       | 23 |
| [도38] 회전식 교반기                         | 24 |
| [도39] 무선 전기주전자                        | 24 |
| [도40] Rocking Teapot, Betina piqueras | 25 |
| [도41] Rocking Teapot, Betina piqueras | 25 |
| [도42] 원통형주전자 도면                       | 28 |
| [도43] 반구 원통형주전자 도면                    | 29 |
| [도44] 몸체 면치기                          | 30 |
| [도45] 부분면치기                           | 31 |
| [도46] 부분면치기의 응용                       | 32 |
| [도47] 회전구조물 제작                        | 33 |
| [도48] 주전자와 회전구조물의 접목                  | 34 |

## 작 품 목 차

|                           |    |
|---------------------------|----|
| 【작품1】 흔들주 전자 2013-Ⅰ ..... | 37 |
| 【작품2】 흔들주 전자 2013-Ⅱ ..... | 38 |
| 【작품3】 흔들주 전자 2013-Ⅲ ..... | 39 |
| 【작품4】 흔들주 전자 2013-Ⅳ ..... | 40 |
| 【작품5】 흔들주 전자 2013-Ⅴ ..... | 41 |
| 【작품6】 흔들주 전자 2013-Ⅵ ..... | 42 |
| 【작품7】 흔들주 전자 2013-Ⅶ ..... | 43 |
| 【작품8】 흔들주 전자 2013-Ⅷ ..... | 44 |

# I. 서 론

## 1. 연구목적

예로부터 주전자는 술, 차, 물 따위를 담고 따르는 기능적인 면과 함께 다른 형태의 기형보다 몸체, 수구, 뚜껑, 손잡이의 구성요소가 어우러지는 복잡한 구조와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주전자는 기능적인 공예품과 더불어 예술로의 작품,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형태의 작품등 많은 현대도예작가로부터 다양한 형태표현과 작품으로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성질의 재료(흙, 금속, 플라스틱)가 사용되어 독특한 디자인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도자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료, 성형기법, 장식기법 등이 변하여 왔는데 각형도자기에서 나타나는 면치기는 장식기법중에 하나로 물레성형, 흙줄쌓기, 관상성형 등을 사용하여 1차적인 성형후 칼을 이용해서 면을 깎아내거나 방망이를 이용해 두드려 형태를 성형한뒤 깎아내는 등 18세기 중기, 후기까지 백자에서 주로 나타난 표현양식이다.

본 연구는 주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실용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물레성형에서의 한계적인 대칭형태를 면치기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전자를 제작하고자 하며 주전자를 손으로 쥐고 따른다는 보편적인 방법에서 회전구조물을 접목하여 다른 관점에서 따르기의 방법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주전자의 일반적 형태의 기능적 특징과 구성을 살펴 봄으로써 기능에 충실한 주전자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주전자의 시대적,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기법중 면치기 기법을 이용한 각형 도자기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 보고 주로 조선시대 백자에서 나타난 면치기 기법을 이용한 작품과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관련자료와 문헌을 통해 고찰함으로서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따르기 방법의 차별성을 둔 회전구조물의 제작에 앞서 회전운동을 이용한 기구 및 제품을 조사하여 주전자와 회전구조물과의 접목을 통한 독특한 조형성을 지닌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주전자의 제작방법으로는 물레성형을 이용하였고 면치기 전 주전자의 기본 몸체의 성형은 원통형과, 반구의 원통형으로 안정감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물레성형이 갖는 정형적이고 한계적인 기본형태를 면의 수직구획, 수평구획하여 균등분할, 비균등분할, 부분분할면치기로 다양한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소지는 백자소지를 사용하였으며 유약은 형태와 면을 잘 나타내기 위해 투명유와 어두운 톤의 용기유약을 시유하여 1차소성은 1000℃, 2차소성은 1250℃ 환원소성 하였다. 회전구조물의 제작은 소성 전과 후, 기물의 수축률의 차이를 감안하여 주전자의 2차소성을 마친후 각각의 주전자 크기에 맞추어 나무, 금속, 아크릴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 II. 본 론

### 1. 주전자의 일반적 고찰

#### 1) 주전자의 개념 및 구조

주전자의 사전적 의미는 술이나 물 따위를 데우거나 그것을 담아서 잔에 따르게 된 그릇을 통틀어 말하며 쇠붙이나 사기 따위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약간 우긋하고 운두가 낮으며 손잡이와 귀대가 달려 있으며 조선시대말까지만 하여도 주주, 주자, 수주, 관자라는 이름도 있었다.<sup>1)</sup>

이러한 주전자는 기능성의 한계적 범주에서 제한되어 제작되어 왔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는 몸체, 주구, 손잡이, 뚜껑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요소와 조형성으로 현대도자작품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 작품으로도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 가) 몸체

몸체는 술, 물, 차 등의 액체를 저장하는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바닥이 넓을수록 담는 양이 많아지고 안정감이 생기지만 시각적으로는 둔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몸체의 입구는 넓게 제작하여야 담고 세척하기 용이하다.

---

1)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0년, p3065

## 나) 뚜껑

뚜껑은 몸체안의 액체를 이물질로부터 오염을 막아주며 액체의 보존역할을 한다. 몸체의 전(턱)부분과 뚜껑의 간격이 없이 잘 맞물리게 제작하는것이 좋으며 뚜껑의 숨구멍은 뜨거운 액체를 넣었을때의 압력으로 인한 넘침, 밀림현상을 방지하고 액체를 따를때 잘나오게하는 역할을 한다.

## 다)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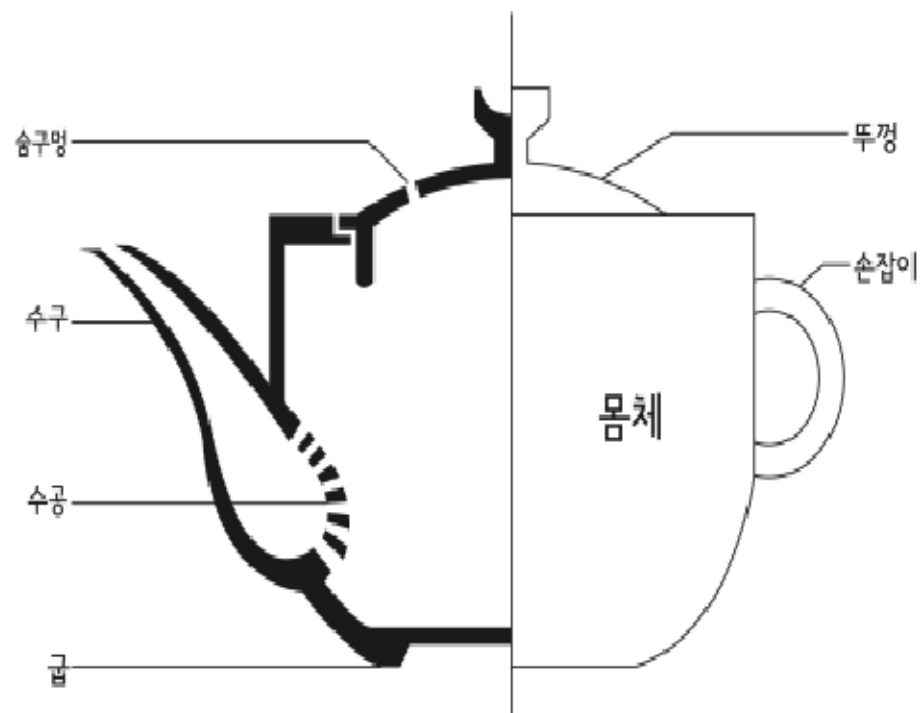
손잡이는 쥐고 따르기에 편리함이 우선이다. 손잡이의 크기가 클수록 따르는데 힘이 들고 너무 작으면 몸체를 지탱하여 들기 불편함으로 몸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크기와 두께가 안정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라) 수구

주전자에서 수구는 주전자의 몸체의 높이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수구의 끝이 주전자 안쪽의 전보다 낮을 경우 주전자안의 물이 따르는 도중 넘쳐흐른다. 수구는 몸체의 아래 쪽에 붙어야 하며 특히 몸체가 긴 주전자일 경우 필히 아래쪽으로 붙여 주어야 한다. 수구가 높을 경우 주전자를 많이 기울여야 하며 주전자를 많이 기울이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뚜껑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적게 남은 물은 배출이 쉽지 않다. 또 몸체에 비례하여 수구의 구멍이 작으면 내용물이 힘차게 나오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될 수 있다. 2)

---

2)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년, p183



[도 1] 주전자의 구조와 명칭

## 2) 주전자의 시대별 특징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전자는 초기의 형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sup>3)</sup> 이는 기능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 공학적인 편리성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던 한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은 고신라시대부터 토기주전자를 제작하였으나 실용성이 결여된 명기적요소에 의한 시도였다.<sup>4)</sup>

그 예로 5세기 신라에서 만들어진 기마인물형 토기주전자를[도 2] 볼 수 있다. 기마인물형토기는 말을 탄 사람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 말 등에는 깔때기처럼 생긴 구멍이 있어 액체를 넣고, 말 가슴에는 대롱이 있어 액체를 따를 수 있다. 말 내부에는 비어 있어 240cc 정도를 담을 수 있다. 이 토기는 신라 왕실에서 술이나 물을 따르는 데 쓰던 주자였다.<sup>5)</sup>

불교가 융성했던 고신라시대로부터 불교의 공양의식과 함께 전래된 다도의 풍습이 기원이 되어 고려에 이르러 불교의식과 함께 생활 속으로 보급되었다고 보여진다. 귀족과 승려 중심의 차문화는 차주전자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적인 장식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었고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와서 주전자의 질적, 양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도 2] 기마인물형토기, 신라 5~6세기

3) 이승목, 김규환, 박창근, 「유제역학」, 동화기술, 서울, 1997년

4) 김철준, 「한국문화사론」, 지식산업사, 서울, 1976년, p66

5) 윤상덕, 「위대한문화유산(국립중앙박물관 선정 우리 유물 100선)」, 국립중앙박물관



【도 3】 청동 은입사포류수금문  
정 병, 고려시대



【도 4】 청자정병,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은제주전자를 비롯하여 청동제【도 3】, 도자기주전자를 볼 수 있으며 주전자 제조사실이 기록된 것은 고려 인종때 중국 사신으로 다녀간 서공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수병」이라는 것이 그 형태는 중국의 주주(술주전자)와 같다고 제작법까지 기술하고 있다.<sup>6)</sup>

고려시대 청자주전자는 금속제 주전자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도 4】 참외나 표주박, 죽순 등 자연형태를 응용한 상형청자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형태의 특징은 몸통과 목을 잇는 돌기선이나 밖으로 벌어진 높은 굽의 형태, 손잡이 윗부분의 꺾인 선과 목의 기벽을 뚫고 안쪽 벽에 부착하는 결구방법 등이 금속제 주전자의 특징과 유사하다. 뚜껑도 예리하고 각이진 구연을 덮는 방법 역시 금속제와 같다.<sup>7)</sup>

6) 서공, 「선화봉사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서울, 1977년, p176

7) 최건 외 3인, 「Korean Art Book 토기·청자Ⅱ」, 예경출판사, p48, p488

분청사기 주전자는 고려에서 연결, 발전했기 때문에 기형은 고려자기에서 변형 발전된 것이 많으며 익살스럽고 대담하며 유려한 선의 흐름을 나타내며 고려시대 주전자보다 더욱 단순화되고 장식성이 약화된 실용적인 주전자의 형태미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백자주전자의 특징을 보면 목의 형식은 직립형의 목 속에 수평의 들출부를 만들어 뚜껑받이 역할을 하여 뚜껑을 목속에 넣어준 형식으로 조선조에 흔히 나타난다. 손잡이는 수직형 이외에 대부분 수평형식으로 부착되어 있다. 주구는 완전한 ‘내향곡선형’<sup>8)</sup>이나 ‘직립외반형’<sup>9)</sup>이 고루 쓰여 졌다. 또한 부착장식이나 상형의 구성이 축소되고 생략된 형태의 단순화에 맞게 장식의 외장이 단순해 졌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전자보다 더욱 단순화 되고 장식성이 약화된 실용적인 주전자의 형태미를 보이고 있다.<sup>10)</sup>

---

8) 수구의 형태가 주전자 몸체 안쪽으로 향하는 곡선의 형태

9) 수구의 형태가 바깥쪽으로 꺾어져 선 수직형태

10) 주현희, 「백자 주전자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p11

### 3) 주전자의 작품 사례

#### 가) 주전자의 형태적 특징

주전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상형주전자, 표형주전자, 과형주전자, 병형주전자, 호형주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상형주전자는 어떠한 사물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고려시대 주로 제작 되어졌으며 실용적인 주전자의 형태라기보다 장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도 5, 6]



【도 5】 청자어룡형주자,  
고려시대



【도 6】 청자퇴화문석류형주자,  
고려시대

표형주전자 또한 고려시대 많이 나타나는데 몸체가 표주박모양을 연상케 하는 형상이다. 동체는 둥글고, 상하로 크기가 다른 구형의 결합을 이루었으며, 이형적인 형태로 허리가 들어간 부분부터 구연부의 목이 길다. 표형은 대부분이 주둥이를 좁게 하여 병형이 되게 만들어 졌으나, 목의 형태나 형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sup>11)</sup> [도 7, 8] 고려청자의 특징인 상감기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11) 박미경, 「도자제주전자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년, p7





【도 7】 청자상감모단당초문  
표형주자, 고려시대



【도 8】 청자상감포도동자문  
동채 표형주자, 고려시대

과형주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참외형주전자이다. 참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름다움을 살려 키가 작고 크고 변화를 주고 참외 모양처럼 골을 주었는데 6골, 8골, 10골, 12골 등으로 다양하게 발달시킨 형태가 나타난다.<sup>12)</sup> 【도 9, 10】



【도 9】 청자참외형주자,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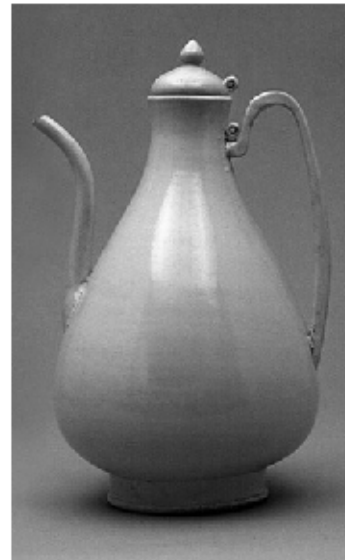
【도10】 청자상감초화문과형주자,  
고려시대

12) 박미경, 앞의 논문, p7~8

병형주전자는 구연부는 좁고 긴 목의 주병, 화병형태의 몸체에 손잡이와 수구를 붙여 주전자로 만든 형태로 목의 형태는 고려청자의 화려한 장식성을 표현한 작품과[도11] 백자의 절제된 간결미를 나타내는 주전자등[도12] 시대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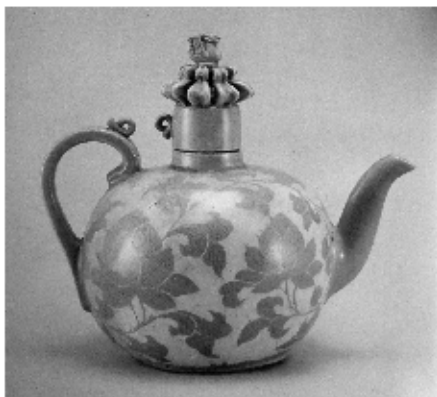


【도11】 청자태화연당초문주자,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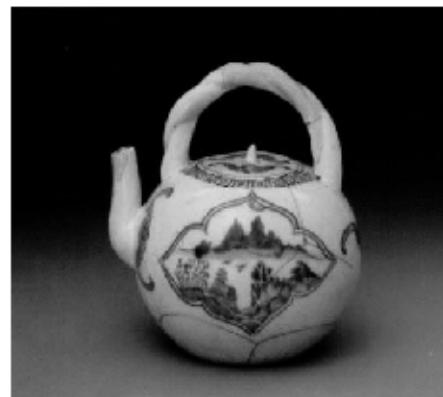


【도12】 백자주자, 조선시대

호형주전자는 항아리 형태의 몸체가 특징인데 구연부의 크기가 좁고 목과 뚜껑의 길이가 긴 주전자[도13], 또는 목이 생략된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도14]



【도13】 청자상감연당초문주자, 고려시대



【도14】 청화백자산수문주자, 조선시대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인 배경에 의한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와 문양, 기법적인 주전자가 나타났으며 19세기말에 와서는 관요의 민영화로 도자문화의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도자제주전자 역시 조선말기의 형식만이 다소 전해졌을 뿐 근대이후 독창적인 발전은 찾아 볼 수 없다.<sup>13)</sup>

#### 나) 주전자의 현대적 변용

1960년대 이후 도예에 다양한 발전과 현대도예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것은 대학에서의 미술교육이다.<sup>14)</sup> 대학에서 도예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하고 유학에서 돌아온 작가들이 교수로 충원 되면서 대학에서의 도예교육이 본격화 되었으며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도예가가 배출되었고 60~70년대 외국에서 유학한 교육자들에 의해서 서구식 도예교육이 도입되어 지금의 현대감각을 가지고 도예작품을 하고있는 작가들의 탄생된 토양이 되었으며 도자공예의 실용적 도자공예 영역에서 기능을 배제한 오브제 형식의 도자영역등 다양한 형태로 도예가 발전 되어 왔다. 주전자 역시 담고 따르는 기능을 하는 공예품과 함께 작가의 상상력이 내포된 작품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15】 한주은, 또 다른 공간, 2002년



【도16】 한주은, 문명의 이기, 2002년

13) 박미경, 앞의 논문, p6

14) 이재언 「한국 현대도예가와 그 작품활동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 월간도예, 1999년, p81

한주는 작가의 작품은 오브제 표현을 중심으로 주전자의 몸체는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고 수구와 손잡이등의 오브제는 인간이 자연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의미를 두었으며 자연의 오염, 물 부족현상 등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다. [도15, 16]



【도17】 장 쇼우즈(張守智),  
曲 - 高,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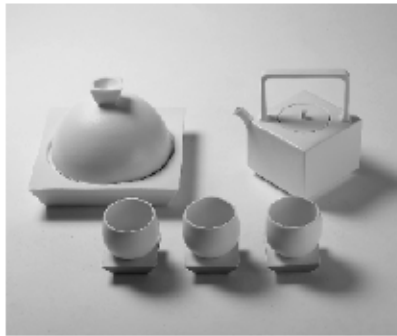


【도18】 장 쇼우즈(張守智),  
高193\_122-1990, 1990년

장 쇼우즈(張守智)의 작품 "曲"은[도17] 달팽이껍질의 유기적 형태 즉 자연물의 나선과 점개선(漸開線)을 조형의 모티브로 하고 있다. 형태의 중심은 아래쪽에 두고 굽쪽의 지름을 작게 하여 형태 바깥의 공간감까지 의식하고 있다. 몸체와 뚜껑이 만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하여 손잡이가 되었다가 다시 몸체를 지나 물대로 연결되는 원을 그리면서 자연스러운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의 연장은 전체적으로 달팽이의 생태적 이미지는 물론 동세까지 느낄 수 있게 하며 특히 물대의 살짝 구부러진 끝부분에서 그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끊어지지 않는 유연한 곡선의 흐름은 단지 조형적 아름다움의 추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물대의 끝에서 몸체 끝까지의 길이는 물을 따르기 가장 적절한 길이와 각도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앞쪽을 약간 높이고 뒤를 낮추어 잡고 따르기 편한 손잡이의 구조와 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曲"은 조형성을 겸비한 인간공학적 구조를 가진 과학적 산물이기도 한 셈이다.<sup>15)</sup>

작품 高193\_122-1990은[도18]은 직사각형 형태가 특징이며 연리문 기법을 이용하여 면의 대비를 주며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15) 우관호, 「장 쇼우즈(張守智)와 즈샤(紫砂)」



【도19】 안혜은, Modern\_C, 2012년



【도20】 안혜은, Modern\_D,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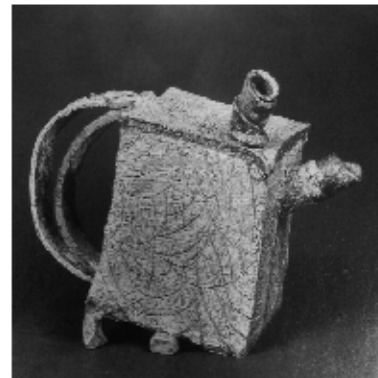
안혜은 작가의 작품은 원과 사각을 모티브로 원형과 각형, 백색과 회색의 조화로 모던함을 표현한 작품이다.【도19, 20】

정희균 작가의 청화백자면취문다관은【도21】 안정감있는 원통형 몸체를 성형후 기면을 면치기하고 생긴 얇은 모서리에 청화로 선을 그려 넣은 작품이다. 자연스러우면서 간결미가 돋보인다.

김영란 작가의 작품은 사각형의 몸체에 도구를 이용해 음각선을 이용하여 질감을 표현하고 손잡이와 수구, 굽을 자유롭게 접합한 작품으로 주전자라는 한 주제로의 지루함을 다양한 형태와 유약을 씌우므로 재미를 더한 의도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다소 투박하며 거친 느낌을 준다. 【도22】



【도21】 정희균, 청화백자면취문다관, 2010년



【도22】 김영란, 주전자, 2010년

## 2. 각형 도자기의 고찰

### 1) 각의 개념 및 특성

각(角)은 네 개의 꼭짓점이 있고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하며 각의 형태는 기하학 형태 개념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기하학은 물건의 형상, 크기, 위치, 공간의 수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하학 형태의 구조는 독립된 기하학적 형태와 여러 유형으로 변화 될 수 있는 단위적 성격을 갖는 유기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체계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자연의 은유적 형태, 혹은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자와 컴파스로 그려 질 수 있는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의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창조적 형태<sup>16)</sup>이다.

기하학적 형태의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하학의 기본 형태인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의 평면 도형이 입체로 발전하게 되면 한 꼭지점과 연결시킴으로써 삼각뿔, 사각뿔, 원뿔 등으로 발전 할 수 있으며, 또한 밑면이 평행인 각각의 기둥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에 적용할 경우 다면체를 형성 할 수 있다. 계속되는 면의 분할과 다면체들이 결합함으로써 점점 형태들은 구의 형태로 되어간다. 이로써 코이지 미야자키는 “다각형, 다면체, 다포체로 진전하는 규칙적인 도형의 흐름은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sup>17)</sup> 기하학적 형태를 살펴보면 평면의 형태인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이 있으며 입체의 형태인 각뿔, 원뿔, 각기둥, 원기둥, 구, 다면체 등으로 분류 할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 형태의 개념안에 포함된 각형은 꼭짓점을 잇는 선분의 수에 따라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6)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년, p86

17) 코이지 미야자키/한석우 역, 「입체조형」, 미진사, 1985년, p34

## 2) 각형 도자기의 특징

면치기 기법을 이용한 각형 도자기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정병에서 보여주고 있으나 어느 시대부터 시작 되었는지 문헌을 통하여 보고 된 바가 없다. 목기나 금속기로 부터 변형되어 옮겨진 것으로 추측되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로 조선 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다양한 기형들이 제작되어 졌다.<sup>18)</sup>

각형 도자 제작의 기법에 관한 용어로는 ‘면치기’와 ‘면짜기’는 혼용 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면치기’의 ‘-치다’라는 표현은 순간적, 즉흥적인 행위에 가깝고, ‘면짜기’의 ‘-짜다’는 ‘-치다’보다 계획적인 의미가 있다.<sup>19)</sup> 또한 면을 두드려 모서리를 꺾는 ‘모짜기’가 있는데 행위적 차이에서 오는 단어의 상이함은 있지만 각형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의 기법적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면치기’, ‘면짜기’, ‘모짜기’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면을 꺾는 방법으로는 금속 칼을 이용하여 면을 잘라내는 방법, 줄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레성형 후 반 건조 상태에서 기벽에 칼을 사용하여 꺾어내는 방법으로 날카로운 면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줄을 이용하는 방법은 태토가 건조되기 전에 가는줄이나 스프링으로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하는 면과 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질감을 낼 수 있다. 이밖에 두들기는 방법을 이용한 면치기 방법은 면을 두들겨 만든 후 면을 꺾는 방법이 있고, 물레 성형 후에 면을 꺾어내고 다시 형태를 성형하는 방법등이 있다.<sup>20)</sup>

18) 서호석, 「면치기 기법을 활용한 백자 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 2010년, p20

19) 한정용, 「조선백자의 간결미에 관한 하나의 해석-면짜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08년, p2

20) 서호석, 위의 논문, p17

### 3) 각형 도자기의 작품사례

청화백자 초화문 표주박형 병은[도23] 다양한 형태의 백자 중에서도 독특한 조형을 보이는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표주박 모양을 하고 있지만, 부분을 나누어 보면 표면을 8각으로 모따기한 튼실한 항아리를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자기마니 상큼하게 생긴 병을 포개어 놓은 것이다. 이런 표형병은 18세기 중기와 후기에 걸쳐 일부 제작되었는데 모따기 한 수법이나 입술이 도톰한 병 모양 등에서 18세기 중기 백자의 고유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sup>21)</sup>

청화백자 철화시명나비문 연적은[도24] 모양이나 백자질로 보아 18세기 전반의 광주 관요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지만, 청화와 철사를 혼용한 다채(多彩) 장식법을 구사하여 나비 그림과 시문을 장식한 희귀한 예이다. 당시 유행을 따라 겹면을 시원스레 모따기 하여 팔각형으로 만든 몸체는 단정한 가운데 당당함이 넘쳐 상당한 조형감을 보이지만, 무엇보다 이 연적은 보기 드문 색채 감각으로 장식된 문양이 특출한 경지를 보인다. 새하얀 백토 면 위에 고운 담채로 정갈하게 그려진 그림과 측면에는 연적에 대해 읊은 칠언시를 행서 맛이 나는 능숙한 서체로 네 자는 철사로, 세 자는 청화로 번갈아 써 놓아, 글씨도 감상하고 장식성도 한껏 높인 이 작품은 시원스레 깎은 8각의 몸체 형태와 색채의 묘미를 기품 있게 잘 살린 작품이다.<sup>22)</sup>



[도23] 청화백자 초화문  
표주박형 병, 18세기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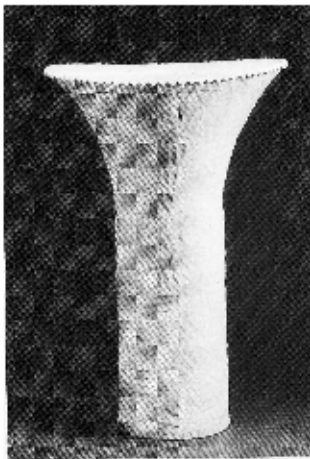
[도24] 청화백자 철화시명나비문 연적,  
18세기 전반

21) 김재열, 「Korean Art Book 백자·분청사기」, 예경출판사, 2000년, p146

22) 김재열, 위의 책, p310



원대정 작가는 전통의 답습에서 벗어나 흙의 조형성에 매진 하였으며 한국적 생활도자 제작에 노력하며 한국현대도예의 태동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작가이다. 초기의 작업은 백자의 전통을 재현하는데 머물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특한 기형태로 발전되어 탈백자화된 작품을 제작하였다. 여백-96의 작품은[도25]은 변형된 기형태에 알맞은 건조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린후 섬세하게 중형끝의 조각도를 이용해 사선형태로 면을 깎아 전체적인 선의 완결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도25] 원대정 「여백-96」 ,  
1996년



[도26] 김익영, 대칭기, 2004년

김익영 작가의 작품[도26]은 물레로 성형한 기물을 방망이로 두드리거나 칼로 면을 깎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원형의 형태를 피하는 화격의 미를 추구한다. 원(구체)에서 각(사면체)으로의 전환으로 전통적인 도예의 한계에서 벗어나 현대성과 세련미를 갖게 된다.<sup>23)</sup> 김익영 작가는 방망이로 두드리 형태를 변형시키고 표면의 마무리를 칼로 면을 쳐내어 질박하고 편안한 질감을 살려 표현하는데, 미세한 질감의 변화는 빛을 난반사 해내면서 단색의 단조로움을 해소해내고 풍부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sup>24)</sup>

23) 이진수, 「토작과 자생」, ㈜월간미술, p55

24) 이기욱, 「면치기 활용과 그에따른 형태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년, p10



【도27】 서호석, A Grove- I, 2010년

서호석 작가의 작품은【도27】 나무, 숲 등의 자연의 이미지를 추상화한 작품들이다. 철저히 계획한 면의 구획에 의한 면치기 작업이 아닌 반건조 이전의 건조상태에서 낚시줄이나 얇은 철사를 이용해 즉흥적으로 기물에 면을 쳐내고 그 위에 음각면치기를 하여 나뭇잎을 생성이라는 주제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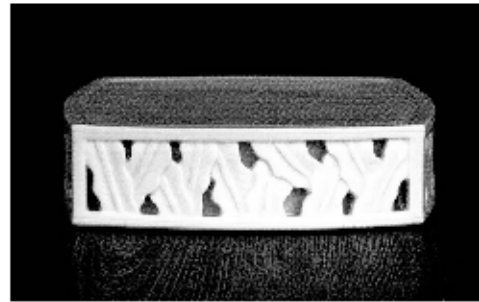


【도28】 이기욱, Face, the music, 2009년

이기욱 작가의 작품은【도28】 기본형인 실린더 형태를 성형후 즉흥적인 면의 구획이나 면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면을 깎아 나가는 작업형태를 취하며 전체적인 면치기 후 한번 더 면을 치는 방법으로 형태의 변화를 주었다. 작가가 의도하는 면치기를 통한 비대칭적인 형태와 면치기한 면에서의 음영의 변화까지 생각하는 치밀한 면을 보이는 작품이며 기물에 연마작업을 한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도29】 이정용, 백자양각모란문팔각반  
2004년



【도30】 이정용, 백자투각파초문반,  
2004년

이정용 작가의 백자양각모란문팔각반은【도29】 딱딱하지만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조선의 목기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물레성형으로 원형반을 성형한 후 여덟 면을 방망이로 두드려 1차적인 형태를 만들고 모깍기를 이용해 면을 정리하였다. 여덟 면 중 네 면은 모란문을 양각하여 제작하였다.

백자투각파초문반은【도30】 18세기의 백자투각파초문필통의 장식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도판성평을 이용해 이중기의 각형 반을 제작하고 바깥쪽 면을 파초문으로 투각한 작품이다.<sup>25)</sup> 백자의 간결함과 절제된 미감이 뛰어나며 작가의 숙련된 기술이 단연 돋보이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도31】 하마다 쇼지, 각병,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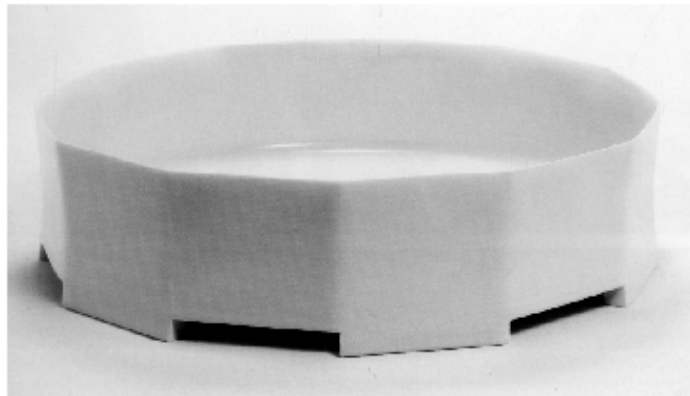
【도32】 스즈끼오사무, 시노물향아리

25) 이정용, 「백자접시에 관한 도자조형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4년, p19~20

하마다 쇼지는 전통형태의 작업에서 출발했지만 극히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선과 미감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도31]각병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형태와 자연스레 그려진 그림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스즈끼 오사무의 작품 물항아리는[도32]는 안정감 있는 형태와 비균등한 면치기 작업, 시노유약의 변화가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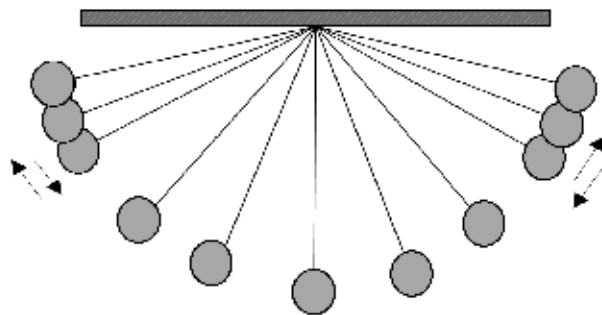
한정용 작가의 백지수반은[도33] 원통형의 몸체를 물레성형후 면깎기를 한 작품으로 면깎기와 굽의 변화로 원형의 단조로움을 보완했으며 백자의 간결함과 더불어 작가의 독창적인 미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도33] 한정용, 백지수반, 2009년

### 3. 회전운동을 이용한 구조물의 이해

회전운동은 물체가 회전축의 둘레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 운동이라 하며 회전운동의 광범위한 범주안에 진자운동도 포함 할 수 있는데 진자운동은 추에 줄을 매달아 줄을 고정하고 추를 한쪽에서 잡았다가 놓으면 추는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추를 진자라고 하며, 진동하는 추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진자운동을 한다.



[도34] 진자운동의 예

이와 같이 회전운동을 이용한 제품, 기구, 구조물은 우리 생활속에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 1) 회전운동을 이용한 기구 및 제품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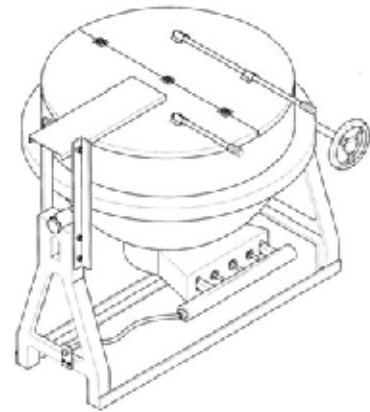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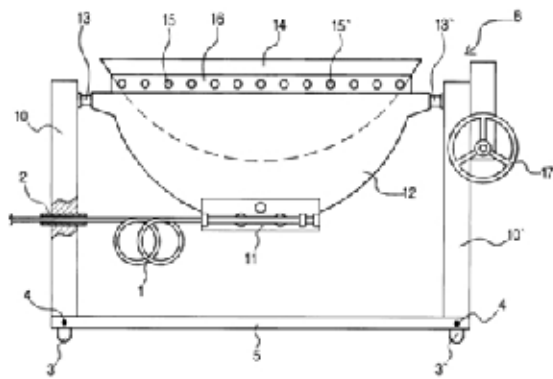


[도35] 거꾸리 운동기구



[도36] 놀이기구 바이킹

대부분 회전운동을 이용한 기구나 제품은 일정한 지지대의 축을 지면에 고정시켜 회전운동을 통한 효과를 얻는다. 휘트니스 센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꾸리(일명 ‘꺼꾸리’)는[도35] 미국에서 허리디스크 환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물리치료기가 상용화 된 것인데 사람의 다리를 고정시켜 360도 범위내에서 회전하는 기능을 한다. 바이킹은[도36] 놀이기구의 한 종류로 90도 내에서의 운동으로 진자운동에 가깝고 휘사용기중 대형가마솥은[도37] 레바를 돌려 솥을 회전하며 기울여 음식의 따름을 용이하게 제작된 제품이다.



【도37】 회전식 대형가마솥



[도38] 회전식 교반기

회전식 교반기는[도38] 많은 양의 재료등을 골고루 혼합하는 기능을 하며 회전가마솥과 같이 혼합한 재료를 덜어내기 용이하게 180도 내외로 기울일 수 있게 제작된 제품이다.

[도39]는 무선 전기주전자의 제품이며 기존의 전기 주전자의 데우는 전원받침이 유선형의 곡선으로 제작되어져 적은 힘을 이용해 기울여 따르는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이다.



[도39] 무선 전기주전자



【도40】 Rocking Teapot, 디자이너 Betina piqueras

【도40】 Rocking Teapot 는 주전자의 따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서 디자인 되어 졌으며 보편적인 도제 주전자의 형태와 나무, 금속을 접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도41】은 주전자의 몸체에 수구가 양쪽 면에 접합되어 따름의 기능과 손잡이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전자 내용물의 온도 유지를 위해 데움의 기능까지 고려한 작품으로 독특한 조형성을 나타낸다.



【도41】 Rocking Teapot, 디자이너 Betina piqueras



### III. 작품제작 및 설명

#### 1. 작품계획

연구작품의 처음 접근과 계획은 담고 따름의 기능에 충실한 주전자 제작에 중점을 두고 전개 하였으며 주전자의 형태와 기법에 있어서는 백자의 조형적 특징인 단순, 간결미의 이해와 고찰을 통해 백자에서 주로 나타난 각형 도자기를 모티브로 하고 소지는 백자소지를 사용하였다.

주전자의 형태는 면치기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원통형과 반구의 원통형을 기본형태로 면을 수평, 수직으로 구획하고 변화를 주어 다양한 형태로 면치기한 주전자를 제작하였다. 유약의 선택은 밝은톤의 투명유약과 어두운톤의 옹기유약을 사용하여 색상의 변화를 주었다.

주전자의 따르는 기능 즉 손으로 쥐고 따른다는 보편적인 방법을 다른 시각에서 따르기 방법을 접근하여 주전자와 회전 구조물과의 접목을 통한 또 다른 기능성과 조형성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구조물의 제작은 주전자의 소성전과 소성후의 수축율을 감안하여 소성결과물이 완성된 후 나무, 금속, 아크릴등의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시작품을 제작하였으며 형태는 최대한 간결하게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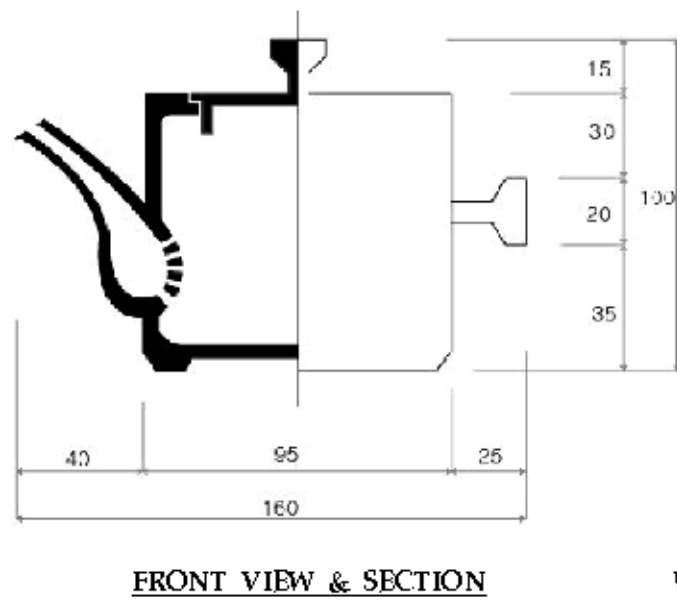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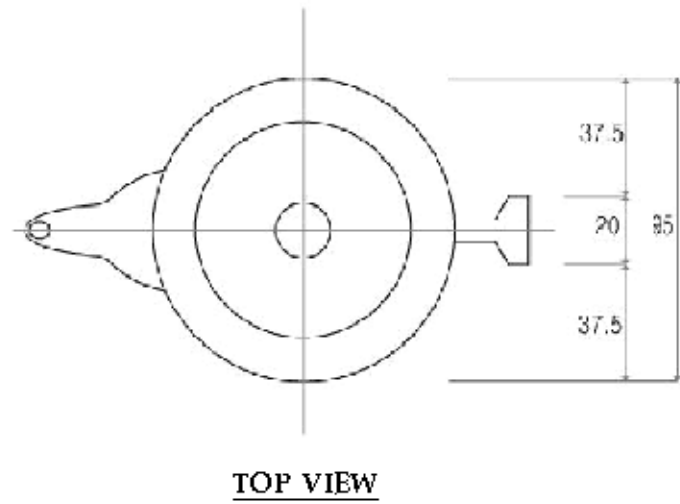
### 1) 소지 및 성형

소지는 백자의 절제된 간결미를 표현 하기위해 대원도제 제품 D-1백자토를 선택하였다. 성형해본 결과 작은 기형의 형태에서는 일반 백자토와 비슷한 점력을 보이며 백색도 또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전자의 몸체 형태는 원통형과 반구의 원통형을 기본으로 안정감 있는 형태로 물레 성형하였고 수구의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로 경우에 따라 펀칭기법을 이용해 성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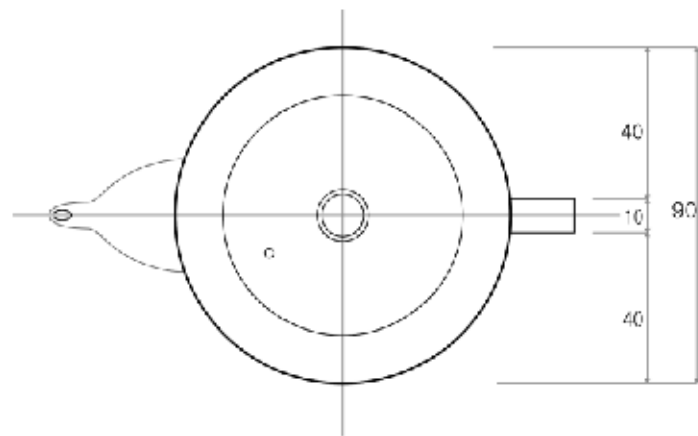
일반적인 주전자 손잡이의 형태는 몸체의 무게를 지탱 할 수 있는 안정감있는 두께와 크기로 제작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의 작품은 구조물과 접목한 형태로 들어올리는 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잡이의 크기는 다소 작게 제작하였다. 여러 구성요소의 성형후 접합으로 이루어진 주전자의 특성상 성형이 완성된 후 건조시 파손을 줄이기 위해 비닐을 덮어 서서히 건조시켰다.

가) 면치기전 주전자의 기본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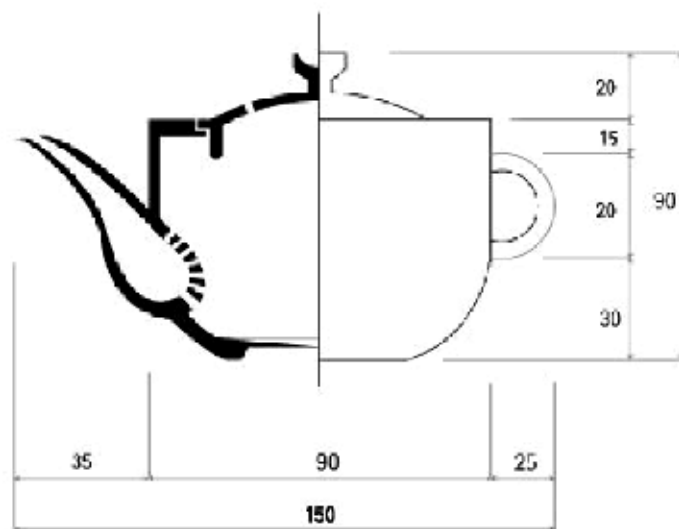


단위/mm

[도42] 원통형주전자 도면



TO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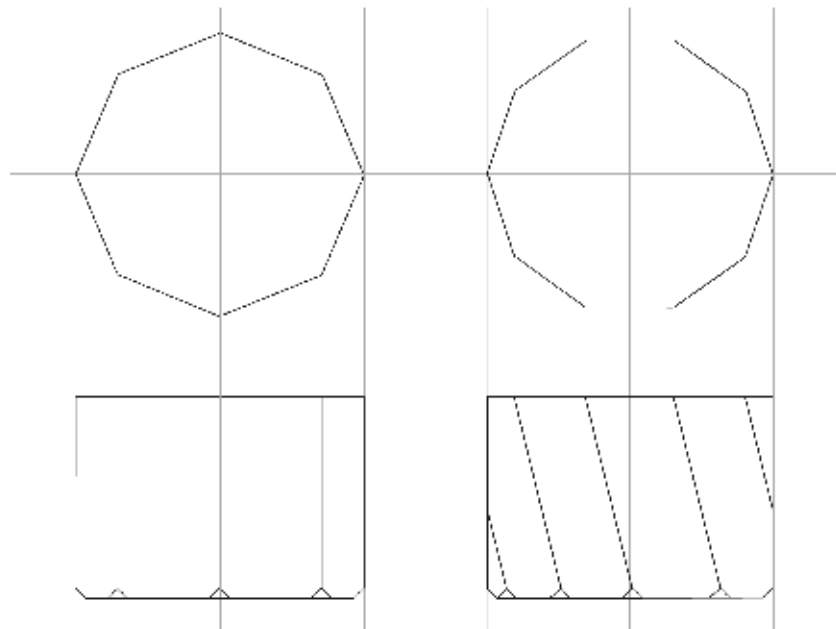
FRONT VIEW & SECTION

단위/mm

[도43] 반구 원통형주전자 도면

## 나) 기본형태 면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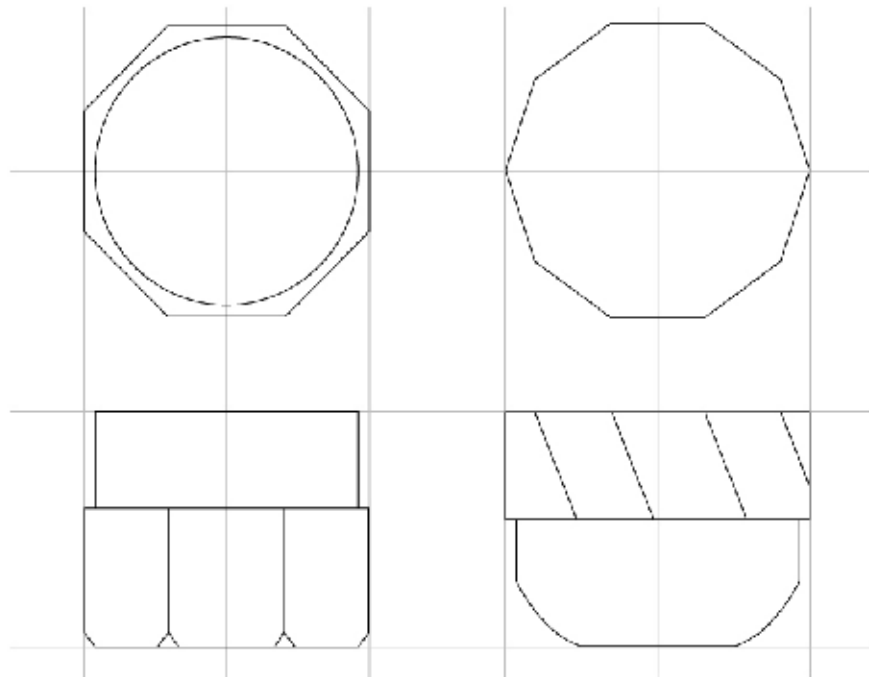
주전자 몸체의 면치기 방법으로는 8각, 10각을 기본형태로 수직으로 균등면치기 와 균등 빗각면치기 방법으로 성형하였다. 각의 면수가 적을수록(6각이하) 면치기전 물레성형에 있어 기벽의 두께를 두껍게 성형하여야 하며 면의 가장자리와 중앙의 두께 차이가 심하게 나는 문제점이 있어 8각, 10각으로 면치기하여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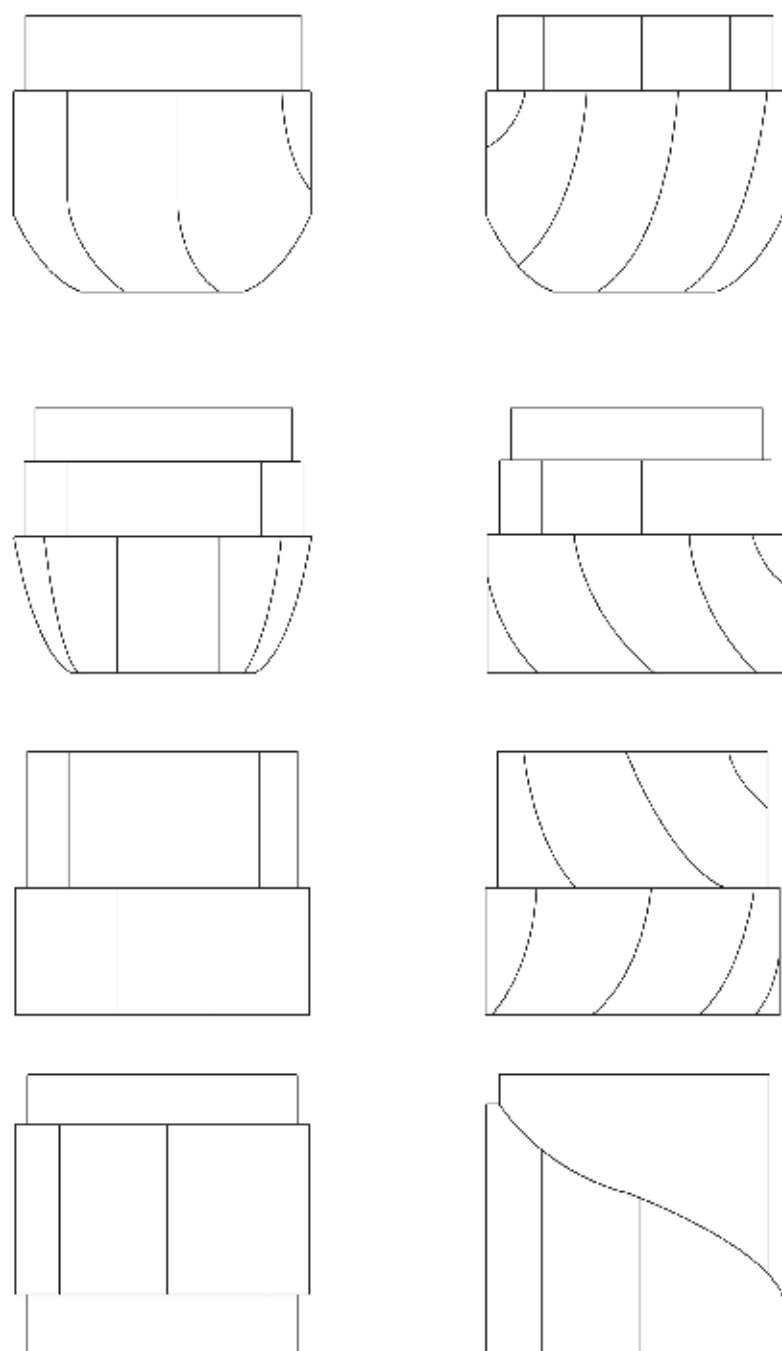
[도 44] 몸체 면치기

다) 수평구획을 이용한 면치기의 응용

주전자 몸체의 전체 면치기가 아닌 부분면치기로 일정한 두께로 물레성형후 수평으로 두면을 구획하고 변화를 주어 한면은 물레성형에서의 대칭형태를 깎아내고 또한 한면은 8각, 10각 면치기를 하여 대비를 주어 다양한 몸체를 성형하였다.



[도 45] 부분면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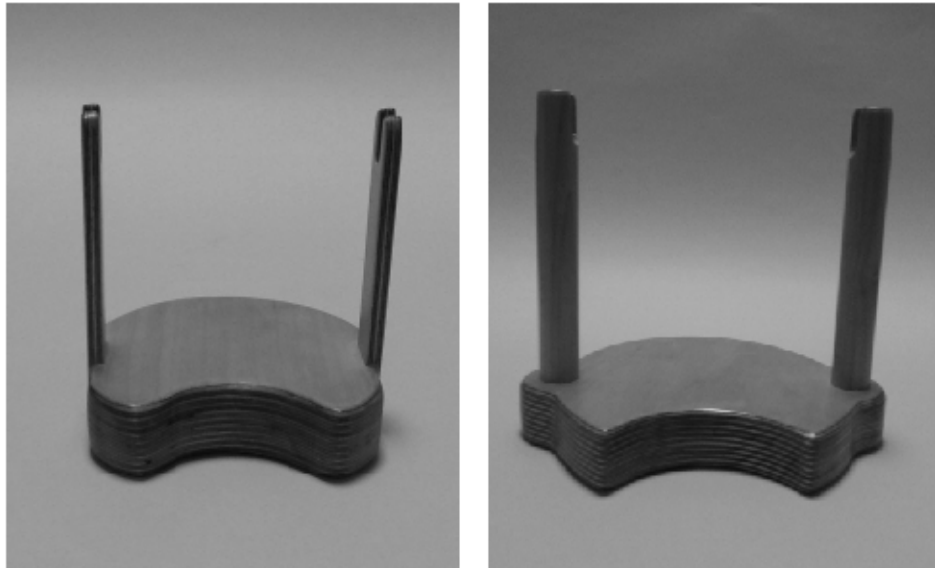


【도46】 부분면치기의 응용

#### 라) 회전구조물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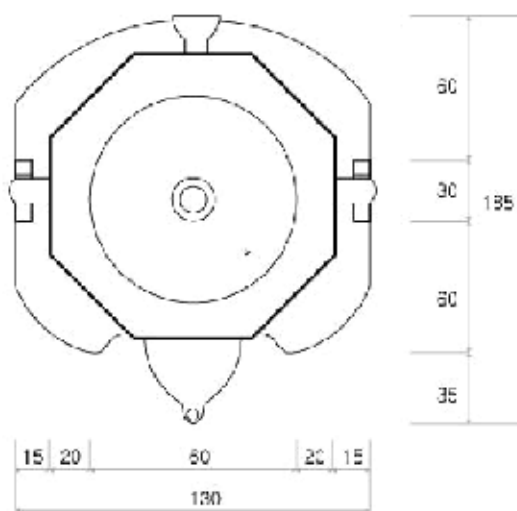
구조물의 재료로 금속(동), 아크릴, 나무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한 결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주전자와 회전구조물과의 접목에 있어 첫째, 주전자의 수평 유지를 위해 주전자 성형후 옆면을 작은 송곳으로 타공하여 수평한 봉을 이용해 관통하여 회전구조물에 매달아 수평을 확인하고 기울어 짐에 따라 타공한 구멍의 위치를 좌우로 조정하여 수평을 잡아 나갔다. 둘째, 주전자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웠을때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 회전구조물의 지지대 높이를 높혀 제작한 결과 전체적 형태의 불안정감을 주어 회전구조물의 나무판 두께를 늘리고 잔의 형태에 맞게 지지대 높이를 낮추어 제작하였다.

금속은 차가운 느낌이 강하고 색상또한 유약의 색에 따라 강하게 대비하는 점이 있고 아크릴(플라스틱)재료는 가벼운 느낌을 주었다. 따라서 구조물 재료로는 따뜻한 질감이 도자기와 잘 어울린다 판단하여 자작나무를 이용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제작하였으며 금속(동)을 이용한 구조물도 시작품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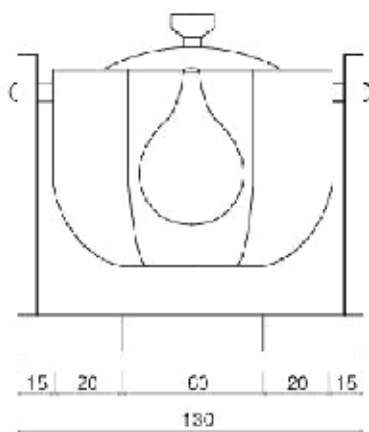


[도47] 회전구조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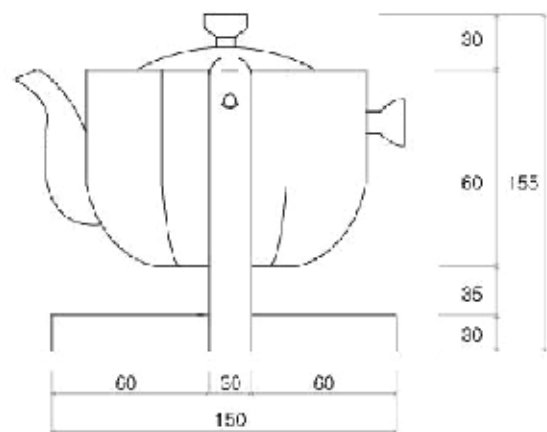




TOP VIEW



FRON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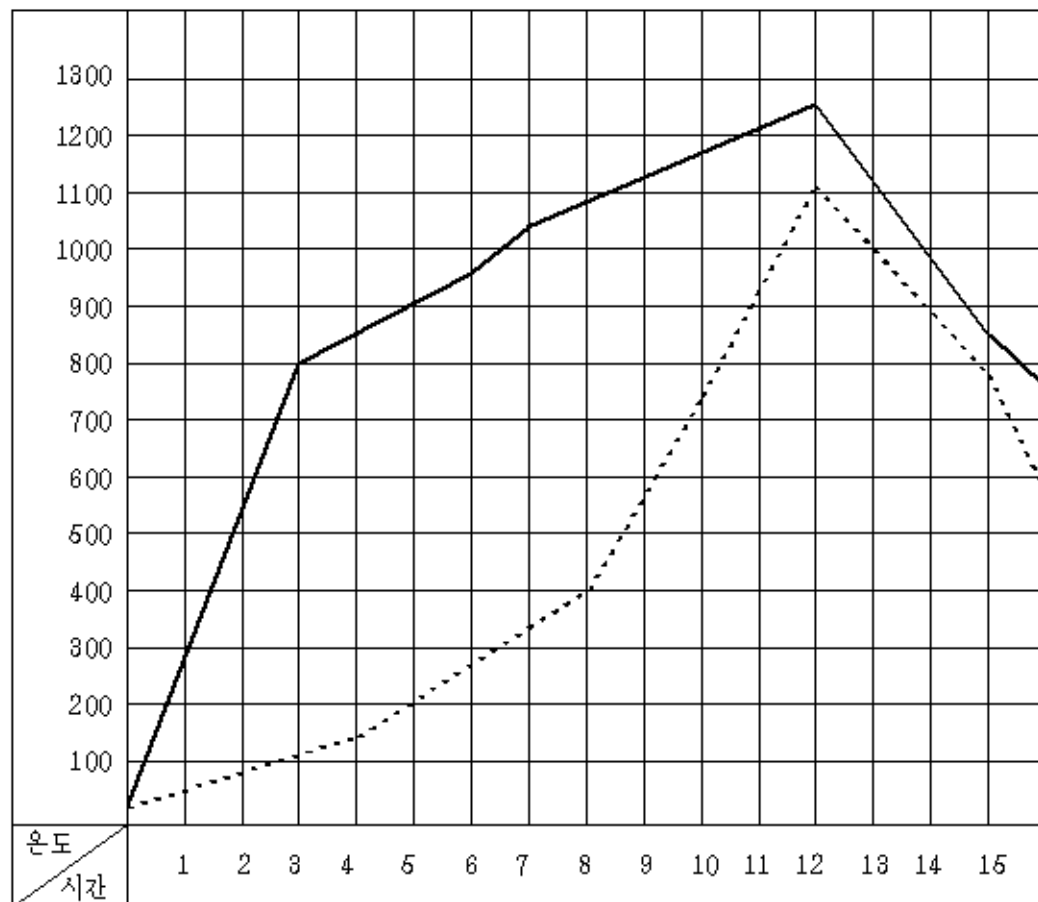
SIDE VIEW

단 위/mm

[도48] 주전자와 회전구조물의 접목

## 2) 시유 및 소성

면치기 작업의 형태와 면을 잘 나타내기 위해 투명유와 어두운톤의 용기유약을 덩빙 시유하였다. 1차소성은 미립자의 백자소지의 특성과 구성요소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주전자형태의 갈라짐과 냉화를 방지하기 위해 1000℃로 전기로에서 소성하였고 최대한 서서히 식혔다. 2차소성은 용융점이 낮은 투명유약을 사용하였지만 가마바닥의 높이를 높이고 800℃~950℃ 까지 천천히 가열하여 상하 편차를 최대한 줄여 가스로에서 12시간 환원소성하였다.



【표 1】 소성 곡선표

1차소성 ······

2차소성 ———

### 3. 작품설명

#### [작품 1] 흔들 주전자 2013-Ⅰ

쫓 주전자의 용도이며 원통형의 주전자 몸체를 물레성형후 윗 면과 아랫 면을 수평구획하고 교차지점을 달리하여 윗 면은 수직 면치기, 아랫 면은 수직 빗각면치기로 변화를 주었고 수구도 면치기하였다. 손잡이와 뚜껑손잡이는 둥근 꼭지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손잡이는 수구와 대칭 지점에 부착하여 따를때 불편함이 없도록하였다. 회전구조물은 자작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투명 유약을 덤핑시유하여 1250℃ 환원소성하였다.

#### [작품 2, 3] 흔들 주전자 2013-Ⅱ, Ⅲ

주전자의 몸체는 반구의 원통형을 물레성형후 윗 면과 아랫 면을 수평구획하여 윗 면은 원형으로 깎아내고 아랫 면은 굽을 깎은뒤 수직구획후 빗각면치기를 하였고 손잡이는 작은 고리형태로 성형하여 다른작품과 변화를 주어 제작하였다. 잔과 잔받침, 접시를 물레성형후 주전자와 동일한 면치기 방법으로 제작하여 통일감을 주어 세트로 구성하였다. 자작나무, 동을 사용하여 회전구조물을 제작 하였으며 투명유약, 용기유약을 덤핑시유하여 1250℃ 환원소성하였다.

#### [작품 4, 5, 6, 7] 흔들 주전자 2013-Ⅳ, Ⅴ, Ⅵ, Ⅶ

주전자몸체의 기본형태는 원통형, 반구의 원통형을 물레성형후 면의 구획을 세면으로 나누어 수직 면치기, 부분 면치기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전자를 제작하였다. 잔과 잔받침, 접시는 주전자의 형태에 따라 통일감을 주어 세트로 구성하고 회전구조물은 주전자의 형태, 크기에 따라 변화를 주어 제작하였다. 투명유약, 용기유약을 덤핑시유하여 1250℃ 환원소성하였다.

#### [작품 8] 흔들 주전자 2013-Ⅷ

쫓 주전자의 형태에서 주전자의 크기의 변화를 주어 술 주전자의 용도로 제작하였다. 반구의 원통형의 몸체를 성형한 후 수평구획하여 부분면치기, 빗각면치기를 응용하여 제작하였고 회전구조물은 자작나무를 사용하였다. 투명 유약과 용기유약을 사용하여 대비 효과를 주었으며 1250℃ 환원소성하였다.



[작품1] 흔들주전자 2013-1, 백자토, 자작나무, 투명유,  
1250℃ 환원소성, 200×150×1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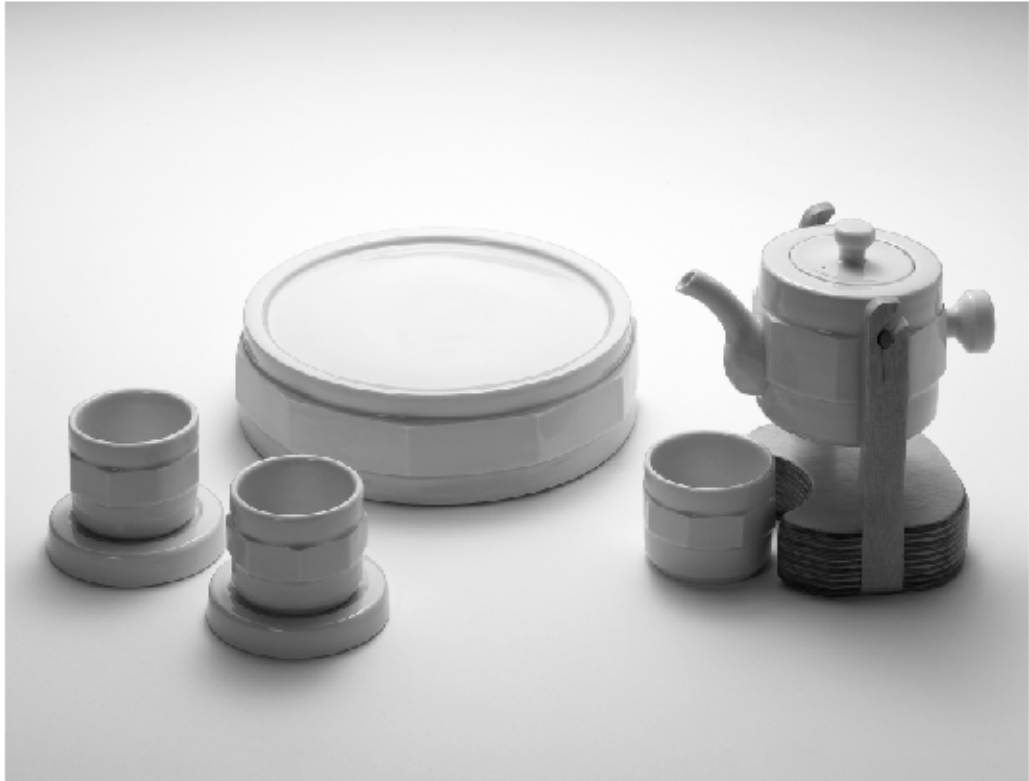
【작품2】 흔들주전자 2013-II 백자토, 자작나무, 투명유,  
1250℃ 환원소성, 250×200×150mm



[작품3] 흔들주전자 2013-Ⅲ, 백자토, 자작나무, 옹기유,  
1250℃ 환원소성, 250×200×150mm



[작품4] 흔들주전자 2013-IV, 백자토, 자작나무, 투명유,  
1250℃ 환원소성, 300×250×150mm



[작품5] 흔들주전자 2013-V, 백자토, 자작나무, 투명유,  
1250℃ 환원소성, 350×300×150mm





[작품6] 흔들주전자 2013-VI, 백자토, 동, 용기유,  
1250℃ 환원소성, 300×250×150mm



【작품7】 흔들주전자 2013-VII, 백자토, 자작나무, 투명유,  
1250℃ 환원소성, 300×250×150mm



[작품8] 흔들주전자 2013-VIII, 백자토, 자작나무, 투명유, 용기유,  
1250℃ 환원소성 600×250×250mm

## IV. 결 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품은 끊임없이 발전, 변화 되고 있으며 단순히 용도에 치우친 형태에서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갖춘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제작 되고 있다. 그 중 도자기 또한 생활속에 필요한 쓰임새 있는 용기의 형태에서 현대도예에서는 쓰임새를 배제한 예술로써의 작품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용적 공예품 제작에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고 옛 선조들의 미감을 바탕에 두고 차별성 있는 주전자제작을 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물레성형에서의 대칭형태를 면치기기법을 이용한 각의 변화, 면의 분할을 통해 다양한 주전자의 형태를 제작 할 수 있었으며 둘째, 주전자는 손으로 쥐고 따른다는 보편적인 방법에서 생각을 전환하여 타재료인 회전구조물과의 접목을 통해 주전자를 따름에 있어 기능의 용이함과 차별성있는 조형성을 표현 할 수 있었다.

주전자를 손으로 쥐고 따르는 기능성은 단순한 공예품의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유대감을 가깝게 하는 매개체 역할 또한 의미 한다. 소수 회전구조물에 의지해 따르는 본 연구의 발상은 사람 대 사람의 유대감을 멀리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과 주전자 크기에 따른 회전구조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용자로부터 효과적인 쓰임새와 미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예품제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며 완성도 있는 작품제작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0
- [2]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년
- [3] 이승목, 김규환, 박창근, 「유체역학」, 동화기술, 서울, 1997년
- [4] 김철준, 「한국문화사론」, 지식산업사, 서울, 1976년
- [5] 최건 외 3인, 「Korean Art Book 토기·청자 I」, 예경출판사
- [6]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서울, 1977년
- [7]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년
- [8] 김재열, 「Korean Art Book 백자·분청사기」, 예경출판사, 2000년

### 월간지

- [1] (주)월간미술
- [2] 월간도예

### 학위논문

- [1] 주현희, 「백자 주전자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 [2] 박미경, 「도자제 주전자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년
- [3] 서호석, 「면치기 기법을 활용한 백자 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산업대, 2010년

- [4] 한정웅, 「조선훈자의 간결미에 관한 하나의 해석-면짜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2008년
- [5] 이기욱, 「면치기 활용과 그에 따른 형태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년
- [6] 이정웅, 「백자점시에 관한 도자조형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4년

#### 웹 사이트

<http://www.daum.net>  
<http://www.naver.com>  
<http://www.claypark.net>  
<http://www.google.co.kr>  
<http://www.yankodesign.com>

## Abstract

### A Study on a Multi-sided Kettle Grafting Rotating Structure - The Focusing on Angle Cutting -

Oh, Seong Hoon

(Supervisor Jong Hyun Kim)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eramic has been part in deeply our daily lives for longtime and is still with us. There co-exist from pottery to serve something as living ware to practical artwork and objet in the contemporary ceramic art. And area of the ceramic art is being extended now, with difficulty to classify them. The study aims to produce practical artwork and its theme is a kettle to function fully when completing various elements harmonized as one among various wares with various forms according to use.

A kettle was chosen for the theme because its various element consisting of body, mouth, lid and grip should be harmonized in the entire artistic form and keep its own function for filling and pouring after shaping and it is available for studying various forms.

For theoretical backgrounds of production of the work, through general review on kettle, forms of kettle and roles of its elements were studied and then characteristics of kettle by time or form and analysis of cases of works of kettle in diverse shapes were followed for producing kettle with practicalness and unique beauty of shape.

The study started from researching alternative for universal pouring method to grip a kettle by hand in different perspectives, by producing rotating structure. The idea of a rotating structure was born from products or equipment using rotating movement.

For shape of the kettle, symmetrical structure, limitation of shaping by potter's wheel, was divided into several sides by angle cutting and then various forms of kettles were manufactured. By grating rotating structure made of different material, the possibilities of production of kettle with easier pouring function and its differentiated aesthetic beauty was suggested.